

Oct 2023. eMFORCE Report

통계자료 및 빅데이터를 통해 본

# 국내 보험 시장 동향

## Intro / 용어 정의

보험은 금전적 손실이나 위험을 특정 조건 하에 보장하는 금융 상품  
종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재보험으로 총 네 가지

### 생명보험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사안을 보장하는 보험  
사망보험 / 생존 보험 / 혼합보험

### 손해보험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  
화재보험 / 해상보험 / 항공보험 / 자동차 보험 /  
여행자 보험 / 배상책임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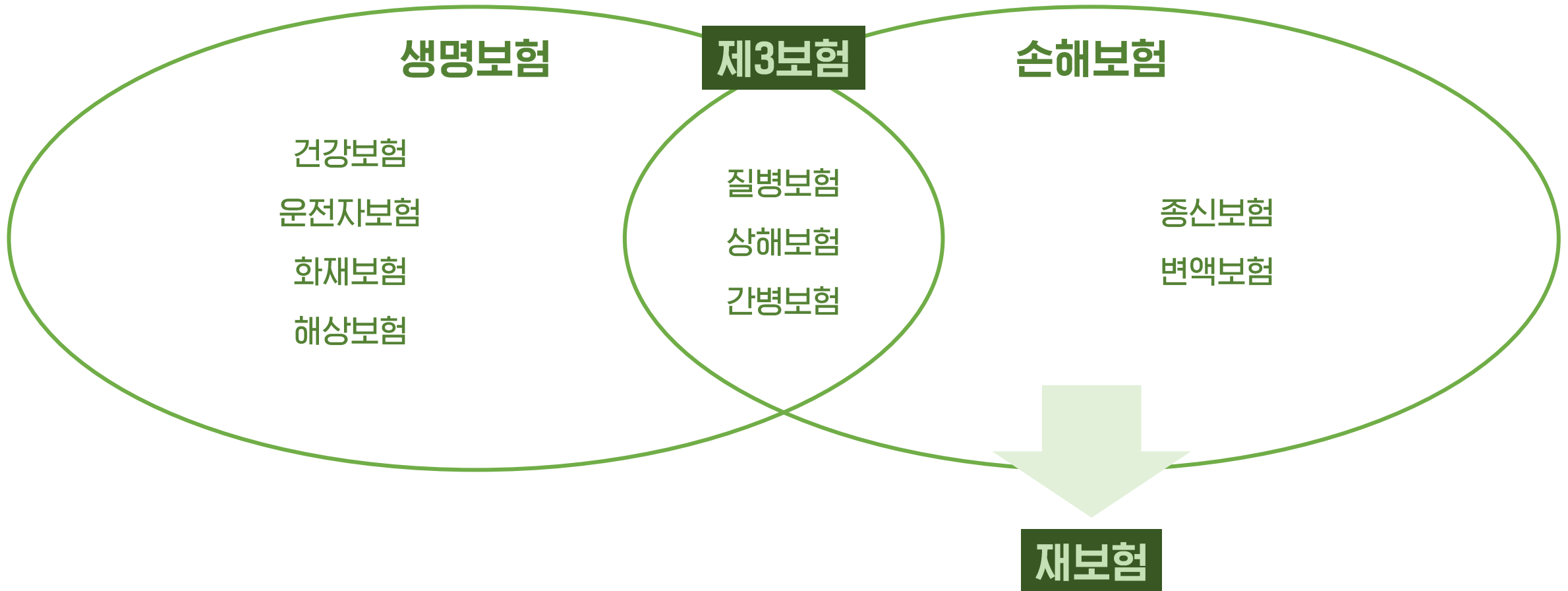
### 제3보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회사 모두 취급하는 보험  
건강보험 / 암보험 / 3대질병보험 / 어린이 보험 /  
치아보험 / 실손의료보험

### 재보험

보험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드는 보험

# 4가지 보험 종류 및 주요 판매 상품 구조 정리



# 국내 전체 보험 시장 보험료 기준 규모 약 252조원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시장 모두 비교적 꾸준히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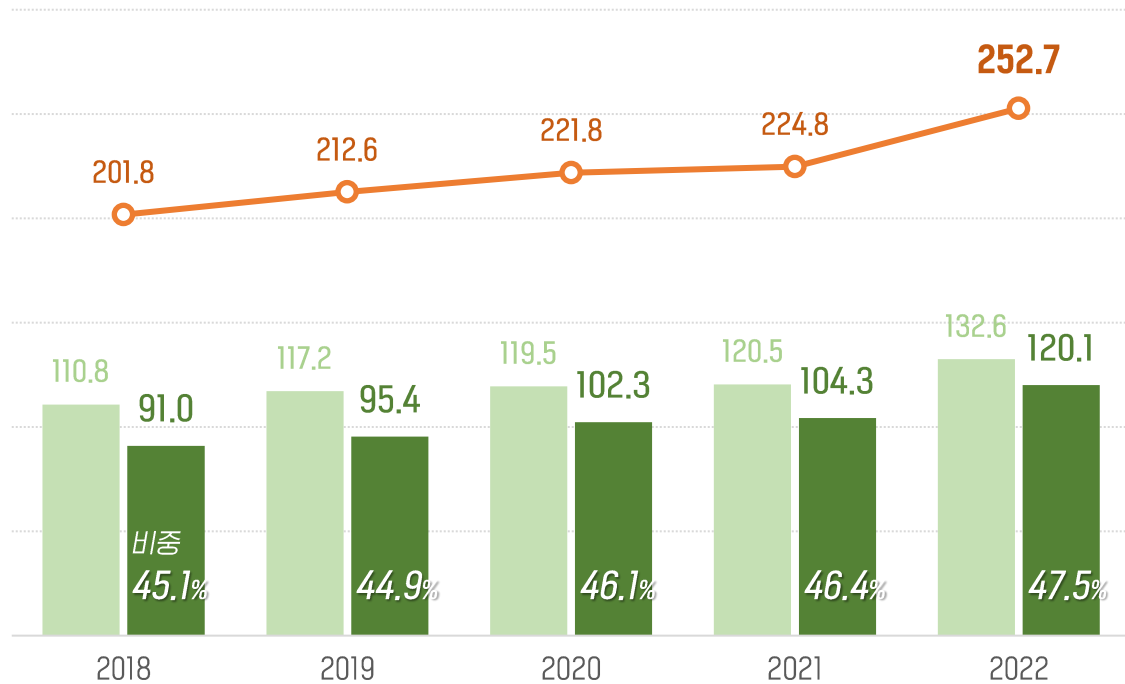
### 생명보험 연평균 4.7% 성장 / 손해보험 7.3% 성장

- 손해보험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도 오히려 성장
  - 팬데믹 기간 높은 유동성에 기인한 투자수익의 전반적인 개선과
  -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인한 (차량 운행 등이 줄어들면서) 손해율\* 하락 등에 기인

\*손해율: 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 손해율이 100%일 경우 납입 보험료를 그대로 지급해줘야 하므로 보험사의 수익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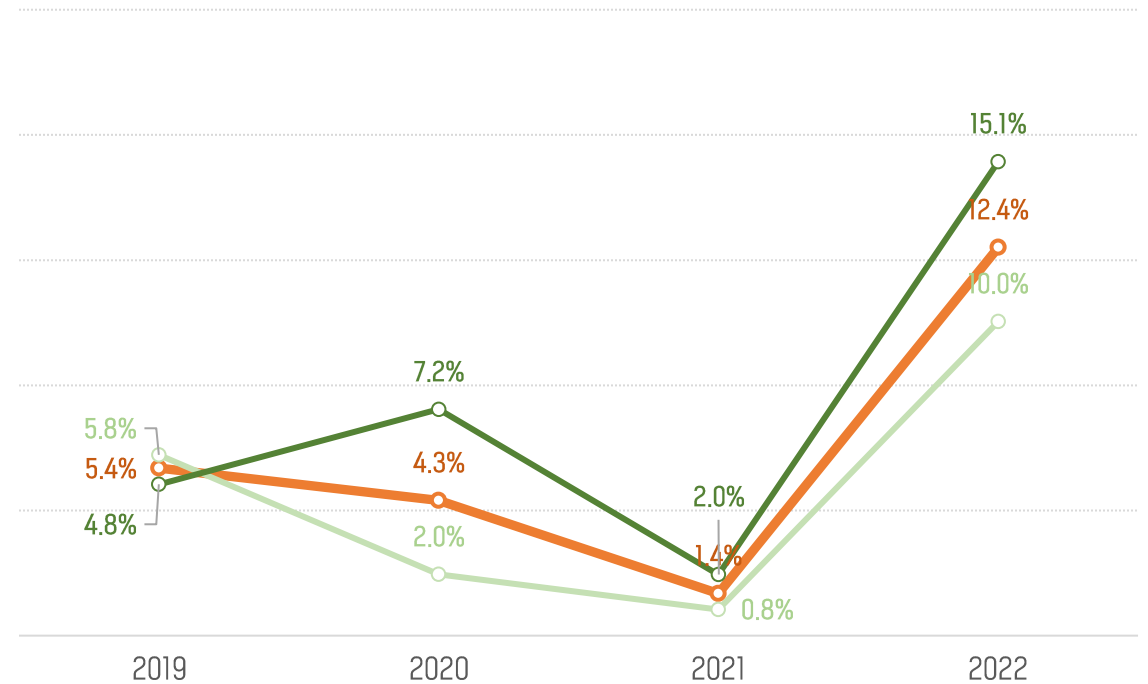
국내 보험사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규모 추이 (단위: 조원)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전체 보험



국내 보험사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규모 연간 증가율

○ 전체 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참고로, 수입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얻은 금액을 말하지만 이는 주로 생명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손해보험에서는 '**원수보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손해보험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Ex. 공장 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재보험계약\*** 등을 하기 때문. 즉, **보험금 지급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원수보험**의 '원'에 해당하는 한자가 '음푼 원[ ]'인데 '첫 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가장 처음 체결한 상대라는 의미인 듯)

\***재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보험 물건에 대한 보험 책임의 분산을 위하여,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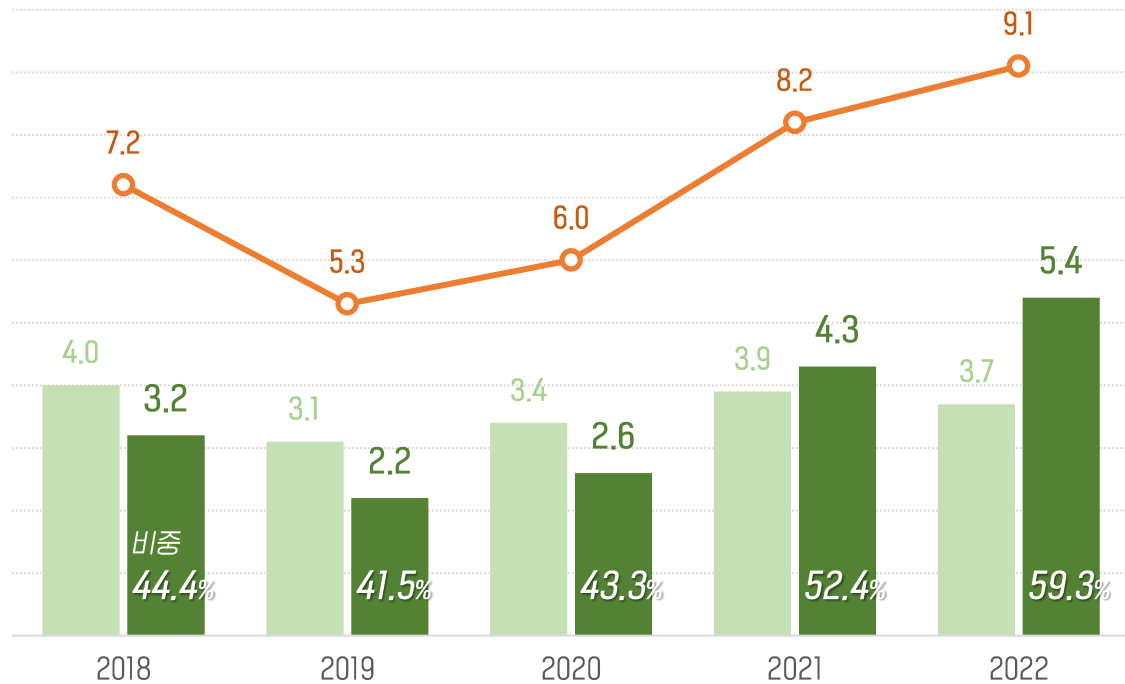
# 국내 전체 보험 시장 당기순이익 기준 규모 약 9.1조원

## 2020년 이후 손해보험 순이익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5.4조 달성, 전체 보험 시장에서 59.3% 비중 차지

- 2021년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 4.3조 달성, 전년 대비 28.7% 증가하며 전체 보험 시장에서 52.4% 비중 차지
- 생명보험의 경우 2022년 당기순이익이 5.1% 감소  
보험이익은 증가한 반면,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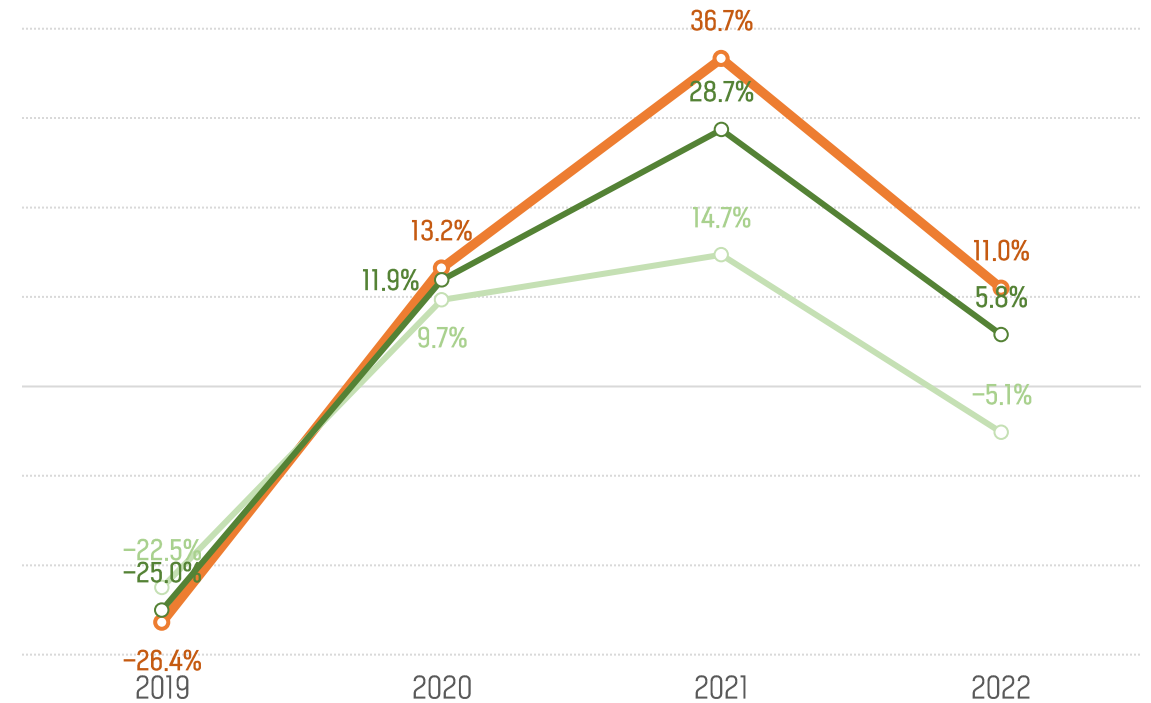
국내 보험사 '당기순이익'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전체 보험



국내 보험사 '당기순이익' 규모 연간 증가율

○ 전체 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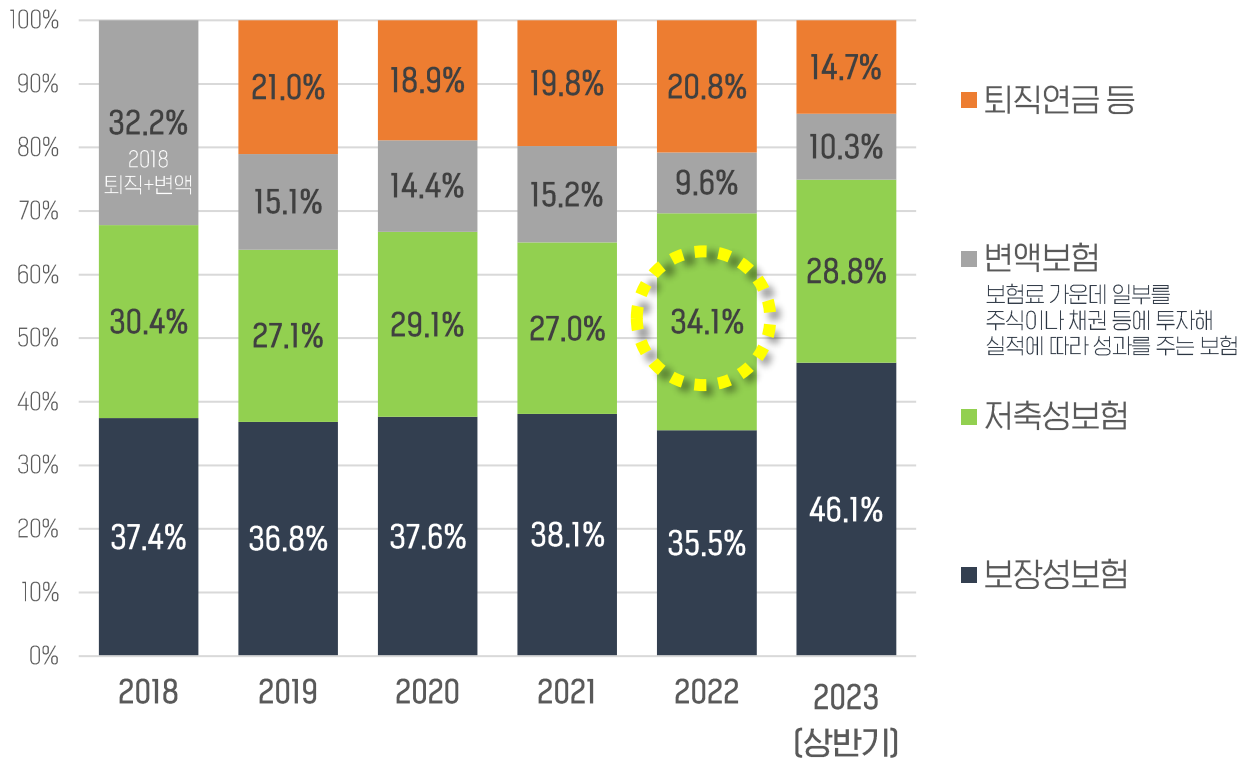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kif.re.kr/kif4/search/total\\_search?mid=72&kw=%EB%B3%B4%ED%97%98%ED%9A%8C%EC%82%AC+%EA%B2%BD%EC%98%81%EC%8B%A4%EC%A0%81](https://www.kif.re.kr/kif4/search/total_search?mid=72&kw=%EB%B3%B4%ED%97%98%ED%9A%8C%EC%82%AC+%EA%B2%BD%EC%98%81%EC%8B%A4%EC%A0%81))

## 보험 종류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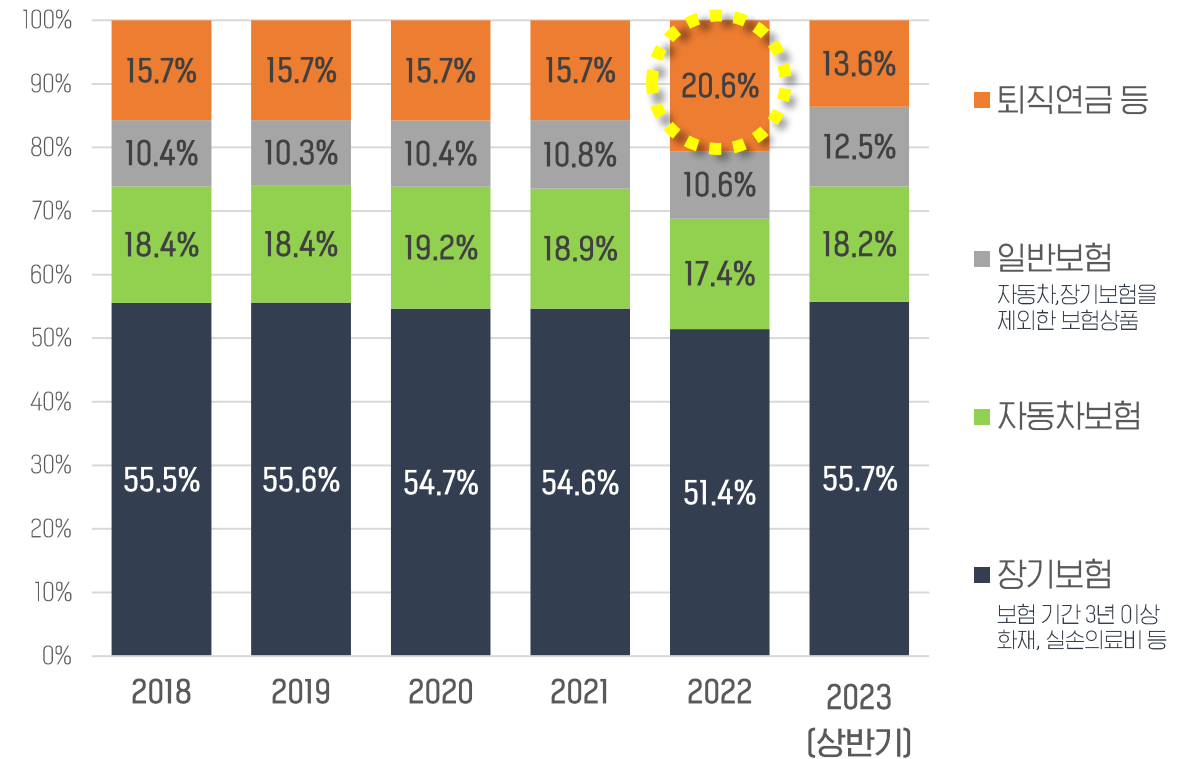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생명보험 → 저축성보험 & 퇴직연금 비중 증가 손해보험 → 퇴직연금 비중 증가

- 생명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판매 위축으로 변액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손해보험 역시 퇴직연금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일반보험 비중은 반대로 증가
- 손해보험 상품 비중으로 보면, 의외로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지 않음. [2023년 상반기 18.2% 수준]

생명보험사 수입보험료 상품별 비중



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상품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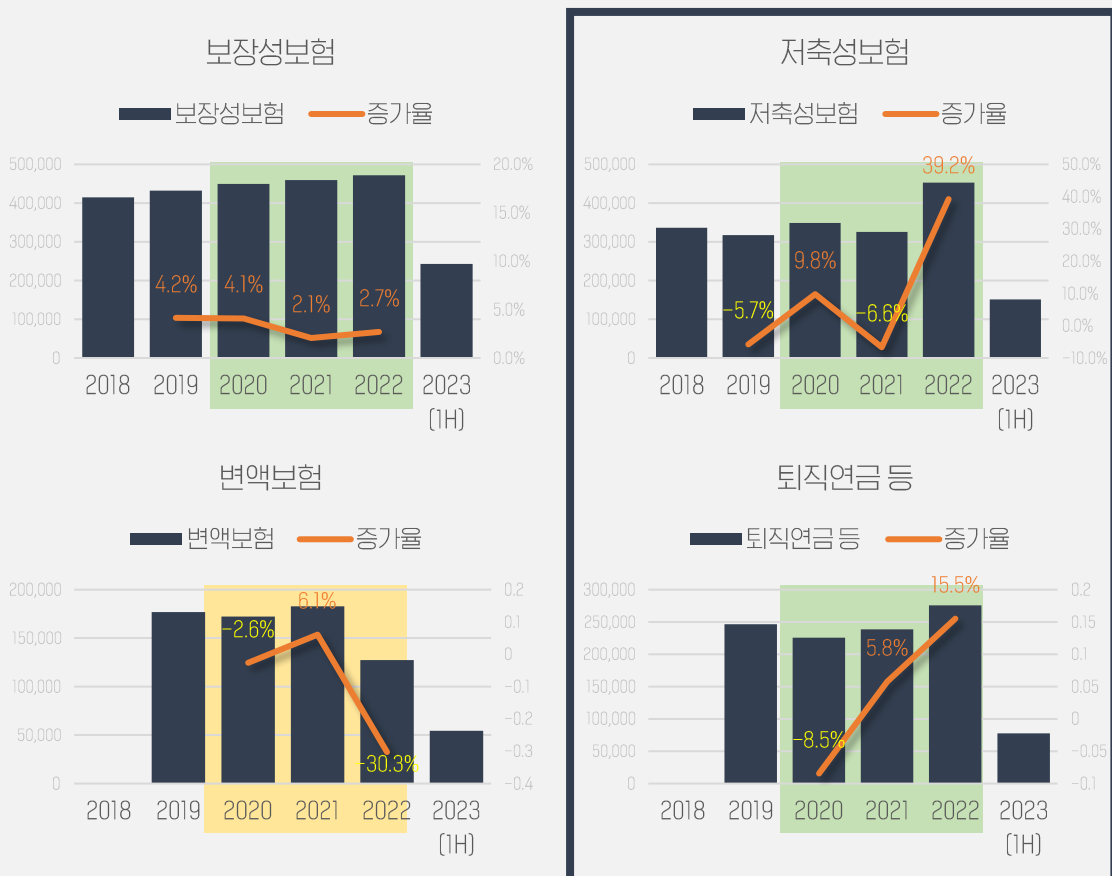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kif.re.kr/kif4/search/total\\_search?mid=72&kw=%EB%B3%B4%ED%97%98%ED%9A%8C%EC%82%AC+%EA%B2%BD%EC%98%81%EC%8B%A4%EC%A0%81](https://www.kif.re.kr/kif4/search/total_search?mid=72&kw=%EB%B3%B4%ED%97%98%ED%9A%8C%EC%82%AC+%EA%B2%BD%EC%98%81%EC%8B%A4%EC%A0%81))

# 보험 종류별 수입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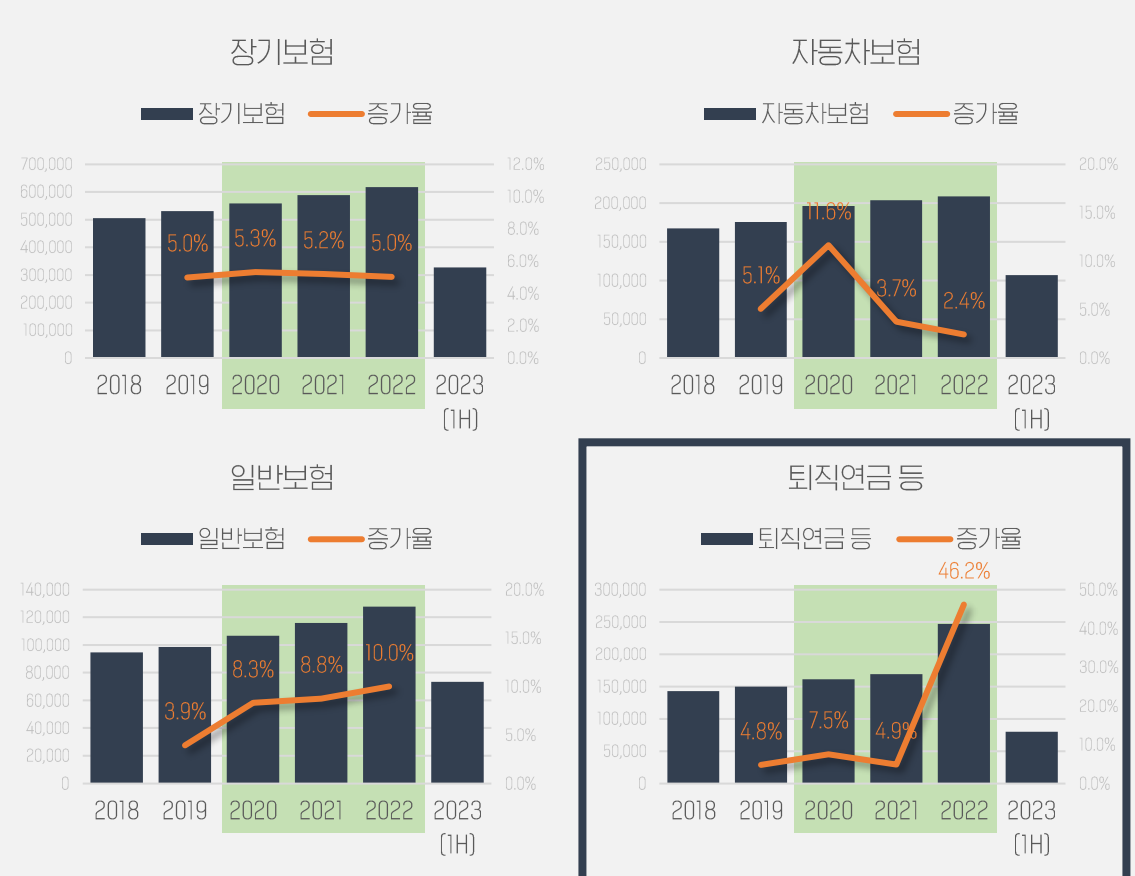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생명보험, 저축성보험과 퇴직연금 큰 폭 증가 손해보험, 퇴직연금 2022년 눈에 띄게 증가

- 퇴직연금의 경우 상품 교체(금리 등을 변경하여 재가입) 등으로 크게 증가 영향
-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생명보험에서 판매되는 변액보험에 대한 수요는 감소
- 그 외 보장성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등은 꾸준히 증가

생명보험 상품별 매출 추이 (단위:억원)



손해보험 상품별 매출 추이 (단위:억원)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kif.re.kr/kif4/search/total\\_search?mid=72&kw=%EB%B3%B4%ED%97%98%ED%9A%8C%EC%82%AC+%EA%B2%BD%EC%98%81%EC%8B%A4%EC%A0%81](https://www.kif.re.kr/kif4/search/total_search?mid=72&kw=%EB%B3%B4%ED%97%98%ED%9A%8C%EC%82%AC+%EA%B2%BD%EC%98%81%EC%8B%A4%EC%A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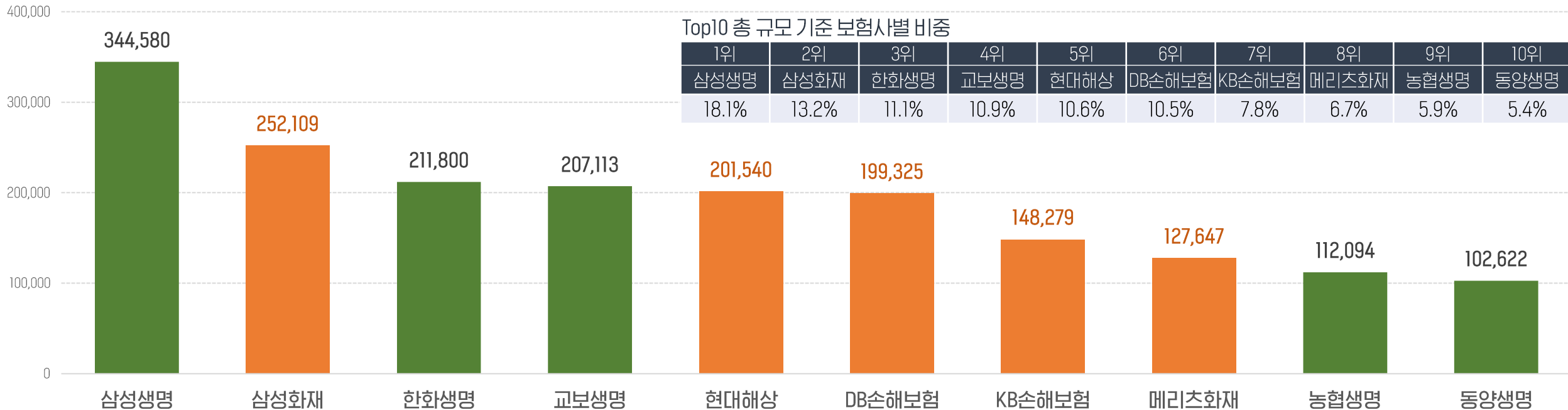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국내 생명/손보사 전체 대상

### Top 10의 영업수익 규모 190조 7,384억원 (전년 대비 15.67% 증가)

- 1위, 2위를 차지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영업수익을 합하면 Top10의 영업수익 규모 중 31.3%에 해당, 가히 압도적
- Top10 중 생명보험사가 5개, 손해보험사가 5개로 동등하게 차지
- Top10 점유율 10% 이상인 보험사는 6위까지로, DB손해보험이 10.5%로 6위 차지

2022년 기준 국내보험사 경영성과 / 영업수익(매출액) 기준

■ 삼성생명 ■ 삼성화재 ■ 한화생명 ■ 교보생명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농협생명 ■ 동양생명



Top10 총 규모 기준 보험사별 비중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보험사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농협생명	동양생명
비중	18.1%	13.2%	11.1%	10.9%	10.6%	10.5%	7.8%	6.7%	5.9%	5.4%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연결제무제표 기준, 조세일보

## 한국금융연구원 『(연간) 보험회사 경영실적』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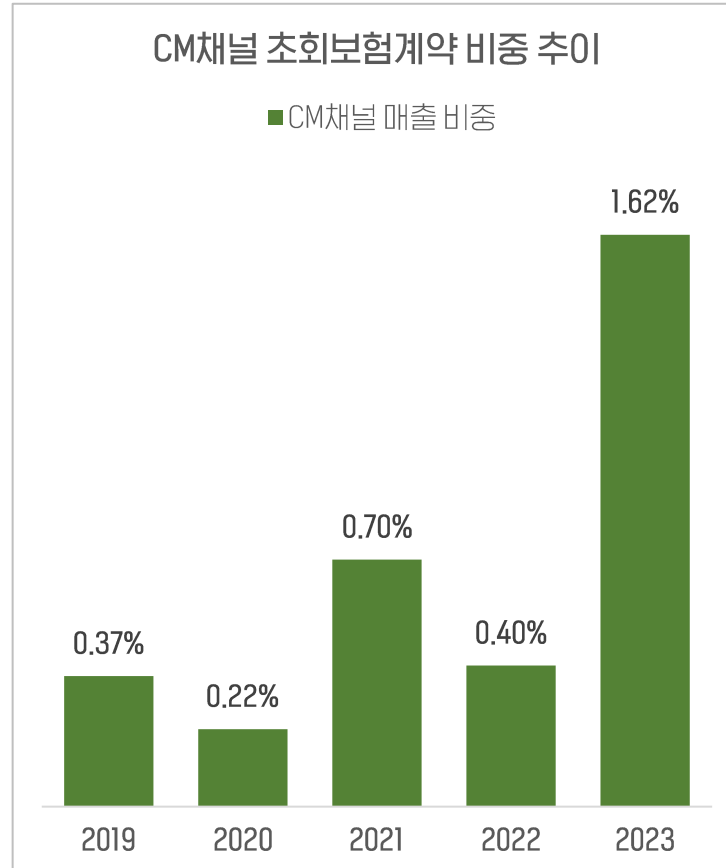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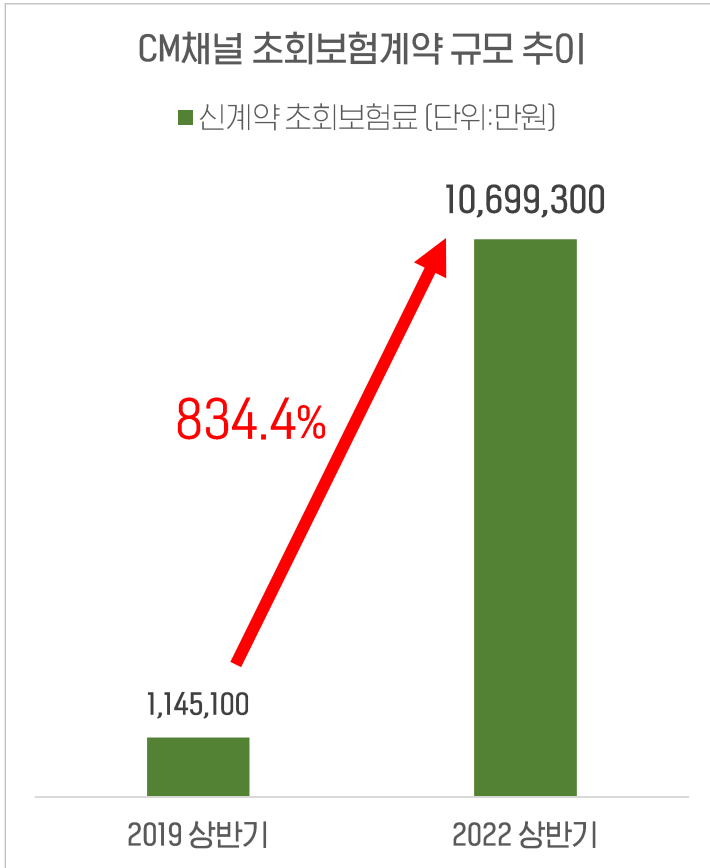
- 생명보험사는 주로 금리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는 반면, 손해보험사는 주로 '손해율'에 영향을 받는 양상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2018	보험영업 손실은 확대되었으나, 일회성 요인인 삼성전자 주식처분이익 (1조 958억원) 등 투자이익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증가	투자이익 증가(5,566억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에 따른 보험영업 손실 악화(△1조 3,867억원)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
2019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증가로 인해 보험영업손실이 확대(△7,820억원) 되었고, '18년 삼성전자 주식처분이익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투자영업이익도 하락(△2,115억원)	투자영업이익은 증가(1조 3,932억원)하였으나, 장기보험 사업비 증가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보험영업손실이 크게 확대(△2조 8,890억원)
2020	저금리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나, 보증준비금전입액 감소와 저축성보험 판매 증가로 보험영업손익이 개선(+2조 176억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손해율이 하락*하여 보험영업손익이 개선(+1조 6,558억원)된 데 주로 기인 *자동차사고·병원진료 감소 등으로 손해율 하락(자동차 : △7.2%p, 장기 : △0.6%p)
2021	저축성보험 매출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손익은 악화(△0.7조원)되었으나, 이자·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크게 증가(+1.6조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및 장기보험 사업비율이 하락하여 보험영업손실이 감소(△1.8조원)되었고, 투자영업이익도 증가*(+0.4조원)
2022	보험영업이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등으로 개선된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평가, 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	보험영업이익이 장기보험 신계약 증가 및 손해율 하락 등으로 개선되었고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개선
2023 상반기	금융시장 불안정 등에 따른 판매 위축으로 변액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장기손보, 일반, 자동차보험 등이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상품 교체(금리 등을 변경하여 재가입) 등으로 크게 증가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kif.re.kr/kif4/search/total\\_search?mid=72&kw=%EB%B3%B4%ED%97%98%ED%9A%8C%EC%82%AC+%EA%B2%BD%EC%98%81%EC%8B%A4%EC%A0%81](https://www.kif.re.kr/kif4/search/total_search?mid=72&kw=%EB%B3%B4%ED%97%98%ED%9A%8C%EC%82%AC+%EA%B2%BD%EC%98%81%EC%8B%A4%EC%A0%81))

## [생명보험사] 보험매일 기사내용 요약

- 생명보험 업계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CM채널 [Cyber Marketing] 영업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지만 전체 영업 비중 중 여전히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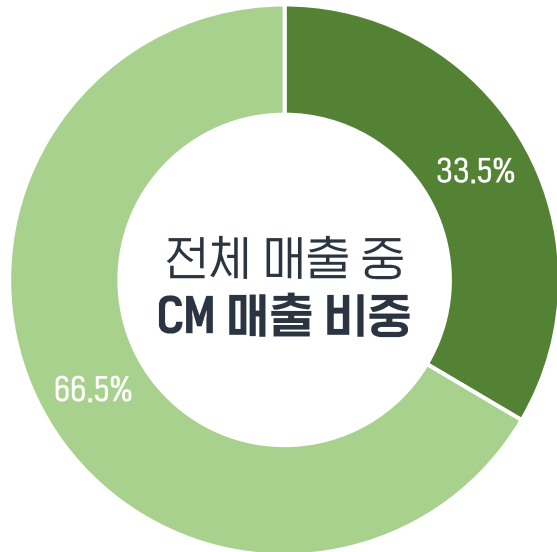


- 과거 대비 CM채널 영업 규모 크게 늘었으나
- 전체 매출 대비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1.62%)
- CM채널에서 발생하는 신계약이 대부분 수익성이 떨어지는 저축성보험
- 생보사는 보장성보험을 판매해야 수익성이 누적되는데, 대부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되면서 실적 개선의 어려움 호소
- 고수익 상품과 높은 보험료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설계사를 통해 발생하는데, CM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하면 최저 가입금액일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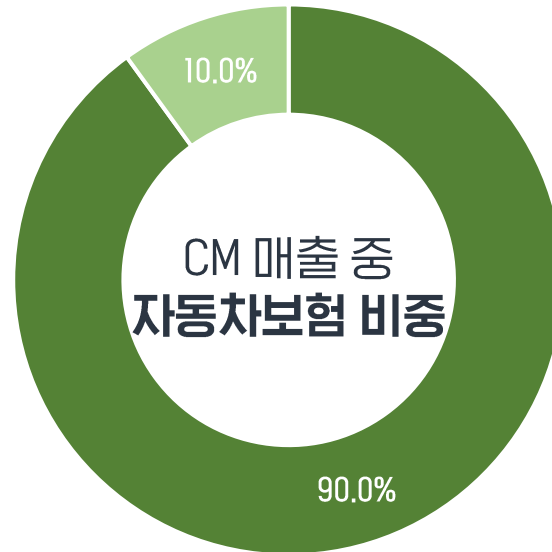
출처: 보험매일 <[CM채널 확대 명암] ① 생보사 성장세 더더...저축성 중심도 고민>

## [손해보험사] 보험매일 기사 내용 요약

- 생명보험 업계 보다는 CM채널 비중이 현저히 크지만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집중 (실제 비중은 90% 후반대)



■ CM매출 ■ CM 외 매출



■ 자동차보험 매출  
■ 기타 보험 매출

- 삼성화재가 2009년 업계 최초로 인터넷 가입 전용 자동차보험을 선보이면서 경쟁사들이 잇따라 동일 상품 출시
- 손보사 매출 10조 규모 중 CM 매출이 3조 정도로 차량 소유자 3명 중 1명은 CM채널로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
- 문제는 CM채널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고 상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 CM채널로 유입이 용이한 반면, 수익성 상품인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상품 구조상 한계 존재
- 또한, 설계사를 통해 영업하면 운전자보험 등을 함께 연계해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CM채널에서는 불가

# E n d O f D o c u m e n t

## Contact Us

Website URL <http://bigdata.emforce.co.kr>

T 02. 6177. 1871 eMAIL [khbak@emforce.co.kr](mailto:khbak@emforce.co.kr)